

	<b>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소</b> <b>해외동향보고서</b>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4.11.

## CEPA Insight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수입식품에 최대 2년 유예
- 할랄청, 의무 할랄 인증제 공식 발효... “위반 시 즉각 제재”
- 제주항공, LCC 최초로 인천~바탐·발리 노선 취항
- BPOM, 화장품 화학물질 한도 규정 개정
- 프라보노믹스 “경제 성장 8% 목표 달성위해 제조업 부문 강화”

###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수입식품에 최대 2년 유예

-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 유예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18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공표했지만, 중소기업과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인증은 유예되었다.
- 수입식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을 완료한 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양주필 정책관은 이번 결정이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인포스트, 2024.10.20)

### ■ 할랄청, 의무 할랄 인증제 공식 발효... “위반 시 즉각 제재”

- 할랄제품보증청(BPJPH)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할랄 인증제를 공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이칼 하산 청장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할랄 인증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하이칼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2014년 법률 33호에 기반한 전면적인 할랄 제품 감독이

시작된다고 알려졌다. 이를 위해 1,032명의 전문 감독관이 배치되어 할랄 인증 미이행 업체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위반 시에는 서면 경고 및 사업장 폐쇄 등의 제재가 시행될 수 있다.

-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SIHALAL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할랄청은 기업들의 신속한 등록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의무 할랄 인증제 시행으로 인도네시아 식품 산업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기업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10.29)

## ■ 제주항공, LCC 최초로 인천~바탐·발리 노선 취항

16일부터 인천~바탐 주3회 취항

27일부터 인천~발리 매일 운항

韓~인도네시아 이동 편의 확대 기대

- 제주항공이 국내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인천~바탐과 인천~발리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인천~바탐 노선은 주 3회, 인천~발리 노선은 매일 운항되며, 각각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바탐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광 도시 중 하나로, 싱가포르와의 근접성 덕분에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항공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해 인천~바탐 노선의 운항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6월에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그룹과 공동운항 협정을 체결해 인천~발리 노선의 운항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중단거리 노선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 신규 노선들이 소비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노선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항공 여행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출처: 이데일리, 2024.10.08)

## ■ BPOM, 화장품 화학물질 한도 규정 개정

- 인도네시아 식약품감독청(BPOM)은 최근 화장품의 화학물질 한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인 PerBPOM 2024년 16호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19년의 12호 규정을 대체하며, 현재의 법적

요구사항과 화장품 산업의 과학적 발전에 맞춰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세안 합의에 따라 1,4-다이옥산의 오염 한도를 기존 25ppm에서 10ppm으로 줄이는 것이다.

- 이번 규정의 변경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1,4-다이옥산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제한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 공개 협의를 거쳐 2024년 7월 25일 법무인권부의 조정을 거친 후, 2024년 9월 17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 새로운 규정에 따라 화장품 업체는 미생물 오염, 중금속 및 화학물질 오염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검사는 공인된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 정보 문서에 테스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에는 경고부터 유통 금지, 회수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BPOM은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에게 규정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출처 : 한인포스트, 2024.10.27)

## ■ 프라보노믹스 “경제 성장 8% 목표 달성위해 제조업 부문 강화”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향후 5년 동안 8%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장관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Agus Gumiwang Kartasasmita)는 이와 관련해 제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드맵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로드맵은 향후 3년 동안 구체화될 예정이다.
- 정부는 전자, 섬유, 자동차, 화학, 의료 장비, 제약 등 핵심 하위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고소득 국가로 만들기 위해 5년 내에 8%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그린드라당 의원 카웬드라 루키스티안은 프라보워-기브란 정부 시대를 긍정적으로 맞이하자고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그는 세대 간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국가 목표 달성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경제 외교와 시장 접근성 향상 등의 조치를 통해 수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4.10.29)

 <p>(출처 : 한인포스트)</p>	 <p>(출처 : 한인포스트)</p>	 <p>(출처 : 제주항공)</p>
<p>&lt;종교부 산하 할랄청(BPJPH)이 주최한 '제3회 Halal 20 Indonesia 2024'에서 종교부장관 연설&gt;</p>	<p>&lt;SI할랄애플리케이션&gt;</p>	<p>&lt;발리 - 램푸양 사원&gt;</p>

 <p>(출처 : 한인포스트)</p>	 <p>(출처 : 한인포스트)</p>
<p>&lt;식약품감독청(이하 BPOM)은 화장품의 화학물질 한도에 관한 2024년 16호 발표&gt;</p>	<p>&lt;프라보워 2024 만드리포럼 기초연설&gt;</p>

##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 유예한 결정은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를 준다. 2024년부터 시행될 의무 할랄 인증제는 모든 유통 상품에 적용되어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제주항공의 인천~바탐 및 인천~발리 신규 노선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규제 강화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기업들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프라보워 대통령의 제조업 강화와 8% 경제 성장 목표는 인도네시아의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며, 국가의 고소득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과 한국의 수출 전략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